미술·디자인·패션·사진…아름답고 미스터리한 색채학의 세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색채학의 50가지 비밀

조앤 엑스터트 외 지음, 조은형 옮김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색을 접하고 산다. 눈을 뜨면서 잠이 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색을 본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색을 떠날 수 없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색의 세상에서 살다, 마지막 색과 이별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색의 효용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 신호등이다. 달리 말하면 신호등은 색을 매개로 가장 선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은 마비될 것이고 당연히 다반사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교통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신호등이다.

인간은 '색의 부호화'를 토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기도 한다. 작금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는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여행이 위험한 국가나 지역을 표시하는 적색 테러 경계 코드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 간 스포츠 경기가 펼쳐질 때 자국 선수와 타국 선수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니폼을 통해서다. 유니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지리적 특성, 고유의 역사와 전통 등이 함축돼 있다. 어떤 부족이 특정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부족은 특정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타 부족과의 차별화, 자기 부족과의 일체감을 공고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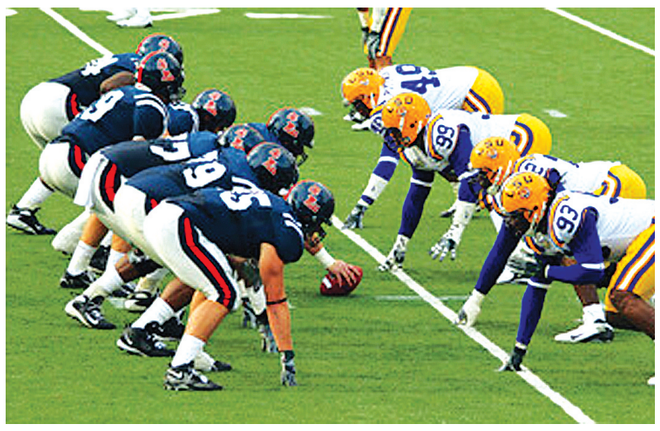
아름답고 미스터리한 색채학의 세계를 조명한 '색채학의 50가지 비밀'은 흥미로운 책이다. 인간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색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다채롭게 풀어낸다. 미국 컬러협회 디자인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온 조앤 엑스터트와 미국 컬러협회 어린이 분과 위원을 역임한 아리엘 엑스터트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저자는 모녀 사이다.

책은 미술을 비롯해 디자인, 패션, 사진 등 색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한마디로 50가지 질문을 매개로 아름답고 미스터리한 색채학의 세계가 전개된다. 질문 하나하나가 이색적이다.

'색이란 무엇일까'와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에너지는 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색채 항등성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몇 개의 색을 볼 수 있을까', '언어는 우리가 보는 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등 심층적이고 난해한 물음도 있다.

저자들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경험은 우리가 보거나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색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색이란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다"라고 전제한다.

무엇보다 색은 인간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부가하는 의미를 내재한다. 일례로 얼굴색 변화로 건강을 알 수 있고, 모국어에 특정 색을 지칭하는 단어의 유무에 따라 색채를 지각하는 방식 등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팀 컬러는 운동선수들의 유니폼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은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 동일한 색에 대해 다른 느낌을 갖는다. 이른바 색채지각은 인간 뇌가 진화단계에서부터 장구한 시간에 걸쳐 발달시켜 온 능력 가운데 하나다. 일례로 푸른 들판의 잘 익은 과일을 잘 보기 위해 색채지각이 점차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를 더 이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색의 구분이다. 형태와 질감, 움직임, 명암과 같은 요소와 결부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저자들은 색채와 연관해 지극히 현실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사례를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소개팅 상대를 만난다면 색과 결부해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고 한다. '하늘색 셔츠를 입은 빨간 머리'라는 정보가 주어졌다면 많은 인파 속에서 그와 같은 상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색의 과학을 알고 나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든 훨씬 깊고, 통찰력 있고, 재미있게 파고들 수 있다"며 "가을 낙엽의 경이로움을 즐기며 단순히 색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과학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황홀함이 가득한 흥미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엑스 리뷰·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색으로 정보를 가장 눈에 띄게 구분 짓는 것은 신호등이다.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

김재희 지음

다음은 누구를 지칭하는 별명일까. '호모 아키비스트', '미답의 길을 걸은 아키비스트', '미술계 넝마주이 전설', '걸어 다니는 미술 사전'.

별명으로만 보면 예술에 대한 특히 미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의미있는 별명은 한국 미술자료계의 '인간문화재'가 아닐까 싶다. 미술 자료만큼은 진심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로 다가온다. 별명의 주인공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이다.

김달진 관장을 주제로 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는 수집에 대한 열정의 삶을 살아온 한 자료 수집가를 초점화한다. 저자는 조각가 김영중의 딸 김재희. 김 작가는 수집에 빠진 한 소년이 미술자료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한다.

이번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열여섯 번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래 전 일기를 읽었다. 또한 수집에 얽힌 일화는 물론 수집과 관련된 정보 등도 참조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은 '수집'과 '공유'로 집약된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는 수집을 위해 달려온 인생 여정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전전하면서 수집에 매진했던 시간에 집중했다. 또한 월간지 기자 시절,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오기까지 등 수집을 향한 진정성을 담았다.

2부는 수집된 자료를 널리 나누었던 삶을 조명한다. 월간지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미술자료 플랫폼'이 될 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해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허락하고 전시 활동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빛나래·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이 우리를 이어 줄 거야

박현희 지음

진로에 대해, 평생 직업에 대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에 디딤돌 역할을 해줄 독서 길잡이 '책이 우리를 이어 줄 거야'가 나왔다.

현직 고등학교 사회 교사이자 여러 독서 클럽을 운영하는 '프로 독서러' 박현희가 세상과 꿈을 향한 여정에서 닻이 되어 줄 28권의 책을 소개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필독서라는 명목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책들 사이에서 길어낸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독서 목록이다.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 '제대로 알다'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돕는 책을, 2부 '새롭게 보다'에는 우물 안 개구리 상태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책을 모았다. 3부 '경계를 넘다'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궁리하게 하는 책들을 정리하고, 4부 '손을 잡다'에서는 다른 이의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세계와 다른 이의 세계가 연대해 더욱 강한 힘을 키울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캐스린 H.앤서니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배신'은 일상의 디자인에서 여성과 아동, 소수자를 외면하고 차별하는 지점을 찾아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용 싱크대의 평균 높이는 160㎝ 정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맞춤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키 높이에 맞췄다는 점에서 여성 친화적인 것 같지만 다른 시점으로 들여다 보면 '주방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을 디자인에 반영한 것 뿐이다.

"어떤 책이라도 삶의 방향과 방법을 모두 알려 주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어려움에 맞서고 사람과 만나는 경험이니까. 다만, 세상에 대한 통찰과 온기를 담은 책들은 청소년이 딛고 건널 징검다리 정도는 되어 줄 것이다."

〈북트리거·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32가지 생물학 이야기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서수지 옮김

"황제펭귄은 왜 다 자란 새끼가 어른보다 몸집이 클까?", "쇠무릎이 천적 애벌레의 성장을 돕는 영리하고도 섬뜩한 속내는?". "집게벌레는 왜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 먹는 동안, 천적으로부터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며 죽어갈까?"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종은 그 수를 정확히 다 가늠하기도 어렵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행동은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 정확히 연구되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는 생물학적 행위들도 많다. 생물들은 특히 '생존'과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생존과 성장을 둘러싼 에피소드 32가지를 담은 생물학 이야기책이 발간됐다. 일본 시즈오카대학교 농학부 교수인 이나가키 히데히로가 펴낸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32가지 생물학 이야기'는 기상천외한 생물학적 궁금증들을 소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소해 준다.

"수컷 고릴라는 새끼들을 일일이 뒤치다꺼리하지 않고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러다가 새끼들끼리 티격태격 싸움을 벌이기라도 하면 심판처럼 끼어들어 중재에 나선다. 이때 수컷 고릴라의 중재는 매우 합리적이고 평등하다."

인간의 '육아 휴직'처럼 일정 기간 무리를 이끌기 보다 새끼들을 돌보는 '우두머리 수컷 고릴라' 이야기도 흥미롭다. 동물들의 행동은 비단 인간과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생명체는 성체가 될 수록 몸체가 커지지만 그 반대인 '패러독스 개구리'도 흥미롭다. 한 번에 3억 개의 알을 낳아도 그중 두 마리 정도만 성체로 키우는 개복치 부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증을 더한다.

〈사람과나무사이·1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3월호

藝鄕

2024년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예향 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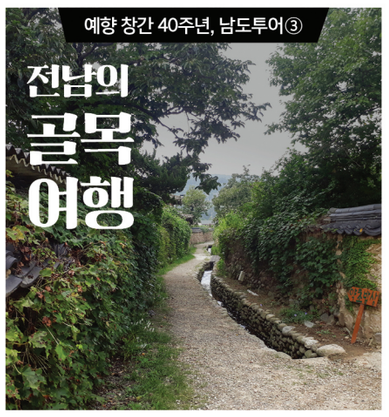
'시간의 층' 읽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낯설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③

전남의 골목 여행



멋과 맛 함께

남도 유랍 담양 여행

대숲체험

예술충전

용마루길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산과 물, 하늘 어우러지는 담양호 '용마루 길'

담주 다미담 예술구 | 메타 프로방스

고재구전통쌀엿 | 안복자 한과 | 송명갤러리카페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작은 네모' 속의 설레임

담양우표박물관

호남의 누정⑧-광주 취가정

충장공 김덕령의 의와 충이 깃든 누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번두리와 언저리'⑯

조선대, 문병란 시인과 이철규 열사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⑥

문화 기부로 차려진 예술 성찬 더 브로드와 LACMA

해외문화기행㉓-미국 샌디에이고

군함 박물관의 위용과 여유로운 해변의 낭만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라틴어 인생 문장'의 작가 한동일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④

대구에서 LA 돌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공명한 화가, 곽훈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돈 되는 한국 시장 직접 노렸다 미드 '성난 사람들' 뜬 비결